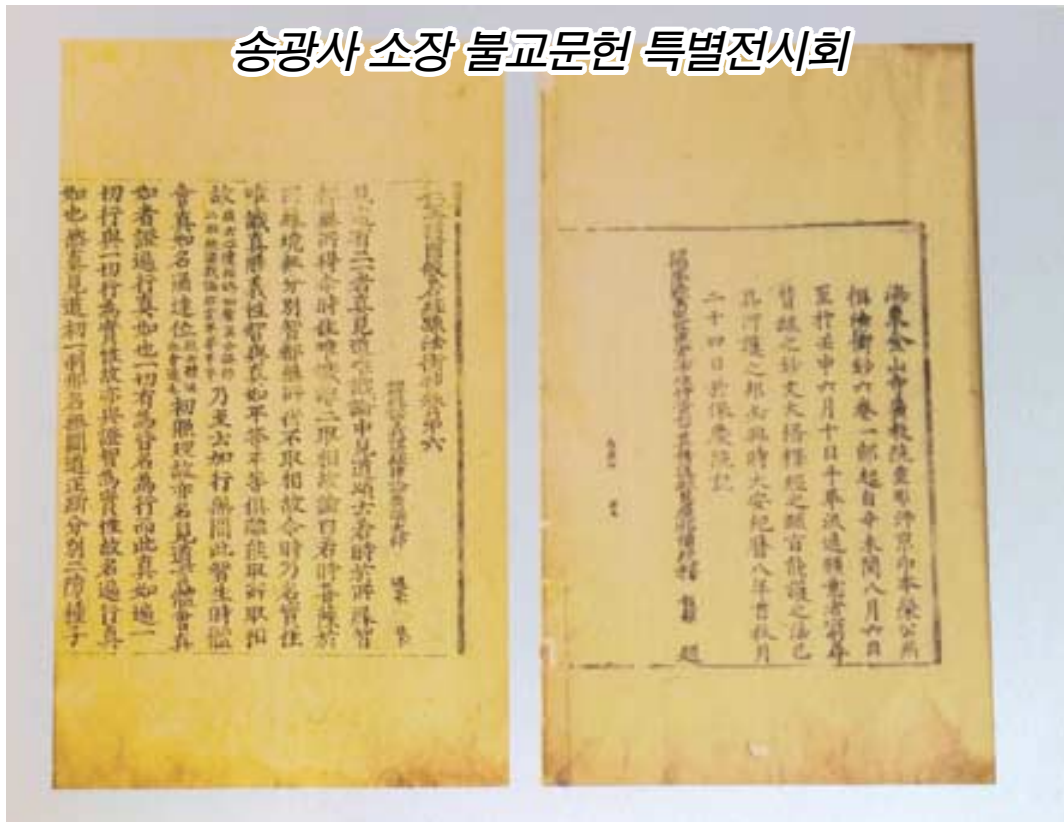


# 옛책 향기 속 가르침 빛나네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 특별전시회

지난 2월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간경도감 중수본> 중 하나인 <인왕호국반야경소법형초> 첫공개 됐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송광사 소장 희귀 불교문헌이 처음으로 공개돼 화제다.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은 4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는 송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670종 1천 5백여 권 가운데 고려시대와 조선초에 발간된 희귀문헌 50여종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물은 지난 2월 사천왕상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간경도감 중수본> 12종. 이 가운데 11종은 <신편제중교장총목(新編諸宗敎藏總錄)>에 나와 있지만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희귀본이고 1종은 서명조차 없을 정도다.

특히 <인왕호국반야경소법형초(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券)6에 수록돼 있는 후기(後期)의 내용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경전 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서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간경도감 중수본>은 조선 세조때 왕명으로 간경도감에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의 간행본을 저본으로 중수(重修)한 책으로 그동안 5점이 송광사에 보존돼 왔고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간경도감 중수본>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고려본 <천태어사한산습득시집(天臺語師寒山拾得詩集)>과 조선 전기에 간행된 <염상당(聃上堂)>, <보살계살생문(菩薩戒殺生文)>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3점의 유물들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2년에 걸쳐 송광사 수장고를 정리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그동안 학계에 전혀 소개돼 있지 않은 판본이어서 불교학은 물론 서지학, 한문학 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희귀본 '간경도감 중수본' 등 눈길

보물 '경질' '경패' 도 생생한 역사 과시

10월 13일까지 박물관에서 50여종 전시

대장경 등 불경을 싸두는 책각(冊匣)의 일종인 경질(經帙)과 대장경 보관을 위해 제작된 경질이나 목함(木函)의 곁에 달아서 그 안에 있는 경전에 수록된 내용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했던 꼬리표인 경패(經牌)도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보물 제134호로 지정된 송광사 경질은 손상이 심해 사진으로 전시되고 있지만 색실로 나타난 아름다운 문양이 지금도 생생하고 정교하다.

송광사 경패 역시 보물 제175호로 표면에는 액(額)을 만들어 경명과 경호를 새기고 틀레에는 연주문(瓊珠紋), 당초문(唐草紋), 뇌문(雷紋), 학문(鶴紋) 등 다양한 무늬가 장식돼 있다.

그 외에도 국보 제43호 <송광사 고려 고종제서(松廣寺高麗高宗制書)>, 보물 제572호 <송광사 고려문서(松廣寺高麗文書)>, 보물 제1376호 <송광사 원대 티베트문법지(松廣寺元代---文法旨)> 등 희귀 불교 문헌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한편 4월 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보살계살생문>



처음으로 공개된 고려본 <천태어사한산습득시집>.



경전 수록 내용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했던 꼬리표인 송광사 경패. 다양한 무늬가 아름답다.



불경을 싸두는 책각의 일종인 송광사 경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송광사에 보장(寶藏)됐으나 소실된 거란대장경과, 문화재로 지정된 고려 고문헌을 비롯해 송광사 소장 불교문헌이 집중 조명됐다.

송광사=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부처님오신날' 기쁨만한 문화현장

### 그림·사진·음악 즐거운 '봉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음악공연, 미술·꽃꽂이·연등 전시회,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 ■김익식 불화전

불화가 김익식이 작가 인생 30년을 결산하는 불화전을 서울 백상기념관(4월 28일~5월 4일)과 해인사 구광루(6월 1일~6월 30일)에서 잇달아 연다. 제 1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던 김씨의 이번 전시회에는 '수월관음도(사진)', '삼세불회도', '열반도', '관경 16관변상도' 등 2m가 넘는 대작들이 대거 출품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158cm, 세로 244cm 크기의 '관경 16관변상도'. 전통불화의 안료인 석채와 은은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이 대표작은 현대적 미학을 고루 갖춘 고려불화의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상기념관 (02)724-2236, 해인사 구광루 (055)934-3102



#### ■불교사진전

불교문화를 사진예술로 승화시킨 불교사진작가들의 전시회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4차로 나눠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1차:5월 10일~15일, 서울 후지포토씨롱 △2차:5월 16일~22일, 부천시청 아트센터 △3차:5월 24일~30일 서울 봉은사 △4차:5월 31일~6월5일,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404-9199

#### ■전통등 전시회



강남 봉은사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통등 전시회(사진)'를 개최한다. 연등을 비롯해 '지국천왕등' '호랑이등' '용(龍)등' 등 한지와 단청의 화려함이 조화를 이룬 오색장연한 등들이 봉은사에 펼쳐진다. (02)511-6070

#### ■한·중·일 음악의

박법훈 중앙대 부총장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는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중일 음악회'를 기획한다. 이날 공연은 한중일 아시아 3국의 민속음악과 국악곡들이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02)3141-4706

#### ■시공의 공명, 케겔링, 탁본 등

5월 30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이윤경 작가의 퍼포먼스 '시공의 공명(共鳴)'도 불교사상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이다. (055)934-3150 통도사박물관에서도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해남 미황사 괘불탱을 모은 '제 11회 해남 미황사 괘불탱 특별전'을 마련한다. (055)382-1001 국립대구박물관에서도 5월 16일까지 우리나라 범종 탁본전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가 열린다. 이 전시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의 탁본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작된 범종 탁본 130여점이 공개된다. (053)768-6952

김주익 기자 jkim@buddhapia.com

http://kumdeung.com

## 황금연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 투병중인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월성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나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염주를 받아서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기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기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 일념무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통로주소 성명들 알려주시면 우체국등가소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도 하고 배송할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77 대흥 B/D 406호